____월 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두꺼운 옷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했다. 땀이라도 났는지 괜히 이곳저곳이 가렵다. 그럴 때면 가려움이 온 가족으로 전염된다.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도 나도 아이도 팔다리를 긁고 있다. 도대체 가려움은 어떻게 전염될까. 과학자들이 가려움의 전염은 뇌에 각인된 현상이라는 증거를 찾았다.

미국 워싱턴의대 가려움 연구센터의 조우펭 첸 소장은 지난 10일 국제학술지 '사이언스'에 "생쥐에서 가려움이 전염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"고 발표했다. 동료가 긁는 모습을 보고 따라 긁는 현상은 지금까지 사람과 원숭이에게만 발견됐다.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7년 3월 25일



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